

학교앞 유해업소 심사 '고무줄 잣대'

학교정화위 뚜렷한 기준 없이 승인 동부교육청은 관리·감독 '나몰라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PC게임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 승인이 뚜렷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교육청이 장회국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게임방 등 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 말 현재 심의 신청 10건 중 6건(60%)을 승인했으며 지난해에는 51건 중 52.9%인 27건의 영업을 허용했다.

반면 서부교육청은 올해 같은 기간 10건 중 30%인 3건을, 지난해에는

44건 중 15.9%인 7건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동부교육청과 대조를 이뤘다.

문제는 동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뚜렷한 근거 제시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렇게 많은 영업을 승인한 이유로 ▲'PC게임방'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 ▲초등학교는 당구장 출입을 안 하므로 유해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생은 통학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매우 낮다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등을 들고 있다.

위원회는 또 영업 승인 과정에서 동일 조건·장소의 PC게임방을 두고 승인을 불허했다가 허용하는 등 정확한 기준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북구 PC게임방은 지난 4월 말에 '개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게임방 전용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으로 심의 신청을 냈으나 불허 당했다. PC게임방은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 문화방과 PC게임방 복합 운영 형태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심의 신청을 내 승인받았다.

하지만 동부교육청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관리·감독권한은 해당 학교장에게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와 학부모 등은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데 불만을 품고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재산권을 내세워 민원과 소송 등을 제기하고 이들에게 패소한 사례도 많아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겠다"며 "단서조항으로 일부 유해업소를 허용할 수 있게 한 관련 법률을 보완해 분쟁을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동·서부교육청을 통해 학교별로 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외국인들 고충 상담

20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 참가자들이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랑의 손길' 묶는 선거법

예산 지원·자원봉사까지 막아 불우시설 '썰렁'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등 차질

해마다 사회복지시설·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했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올해는 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이란 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지원은 물론, 일부 사회단체들의 자원봉사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는 오는 28일부터 3일 동안 열기로 했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대통령 선거(12월19일) 이후로 연기했다. 동구청으로부터 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선거법이 선거 60일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사를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어서다.

센터는 지난해 500만원을 들여 김장을 담아 독거노인·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230가구에 2포기 이상 전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200만원으로 줄었고, 선거법으로 지자체 지원마저 늦어져 가구당 1포기를 보내기도 빠듯해졌다.

서구청도 KT&G로부터 절임배추 700상자(상자당 10kg)를 지원받아 오는 12월5일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기로 했으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고민하고 있다.

선거 30일 전인 오는 27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새마을운동본부·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봉사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원봉사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서구청은 행사를 연기하거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선 동 부녀회 회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250만원, 북구자원봉사센터는 230만원의 김장 비용을 각자 확보하는데 그쳤고 자원봉사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도 울상이다. 아동 115명이 생활하고 있는 북구 동림동 '애육원'은 지난해 절임배추 500포기와 난방비 13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아직 1포기의 김장도 들어오지 않았다. 동구 소재 동 '이일성노원' 등 노인시설에도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5·18 학술대회·음악회 잇따라

아시아 속에서 5·18의 의미를 다지는 학술대회와 음악회 등이 잇따라 열린다.

전남대 5·18민주인권평화센터(센터장 최석만·이하 센터)는 5·18민주항쟁의 정신을 아시아의 시민사회, 국가폭력, 참여, 저항음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릴레이 학술대

회를 개최한다. 센터는 21일 광주전남문화재단과 함께 '5·18민주항쟁공간의 보존과 문화적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다. 발표에 앞서 영화 '화려한 휴가'의 김지훈 감독이 '김지훈 감독과 함께 하는 영화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26일 오후 7시에는 광주 드림아트홀에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27일에는 '참여음악 이야기'를 주제로 이토 나리히코(일본 중앙대 명예교수) 교수가 윤이상의 음악과 광주의 관계에 대해 강연한다.

28일에는 '5·18민주항쟁과 문화적 변동'을 주제로 토론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y 세무정보 조회 서비스'

북구 홈피, 지방세·과태료 등 한눈에

전국 최초 운영

광주시 북구는 20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와 과태료 등 개인 세무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My 세무정보 조회 서비스'(http://bukgu.gwangju.kr/etax/)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올해와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료를 통합해 인터넷에 개인화 형태(My-Page)로 제공하는 것으로 세금 고지·납부·체납정보·산출 근거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등 개인 세무관련 정보를 한 번에 손쉽게 알 수 있게 했다.

북구는 향후 주·정차 위반과태료와 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추가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청 홈페이지 '세무정보 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실명 및 휴대전화 인증만 거치면 된다.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송광문 북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된 세무정보 서비스는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세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납세자들이 납세 의무를 다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사랑의 연탄' 2만장 기탁

광주시 북구청(구청장 송광문)은 20일 구청 앞 광장에서 SK텔레콤 서부 마케팅본부(본부장 김순형)로부터 사랑의 연탄 2만장을 기탁 받았다. '사랑의 연탄'은 오는 30일까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 100세대에 세대당 200장씩 전달된다. 왼쪽부터 안천소 주민생활지원과장·허우주 주민생활지원과장·송광문 북구청장·김순형 본부장.

<북구청 제공>

도시공사, 선운지구 임대 540세대 공급

광주시도시공사(사장 이희욱)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광안구 선운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임대아파트 540세대를 건설·공급한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20일 이사회를 열어 '선운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승인받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이달 중에 하남 4택지개발지구에 전용면적 110㎡ 330세대, 116㎡ 210세대 등 540가구 공사에 들어간다. 단지는 15층 이하 9개 동, 부대시설 2동 등으로 구성되면 2012년 7월에 완공된다.

분양대상은 저소득 무주택자, 임

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근 지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도시공사는 5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계획이다. 도시 공사는 그동안 삼촌영구임대 등 영구임대주택 680세대·신가지구의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 각 650세대 등 모두 4천 830세대의 서민용 주택을 건립·공급해왔다.

한편, 도시공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86명의 비정규직 '용원'을 정원(정규직)에 포함하고, 빛고를 실버타운 내 골프장 조성비를 기존보다 56억원 증액한 463억원으로 조정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 가장법률상담소 보건복지위원회상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MCA 527-0011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센터 02118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 국제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인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소 369-9881	● 가정폭력 국번없이 112 222-0112 366-0112 233-2828 (02)118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기동우사대 (여) 229-0118 (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이동학대예방센터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상담	● 범죄변호사(21일) 문성탁 233-7701 ● 법무사회 법률상담(21일) 박상태 370-0600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8시
장소: 함평대미너스튜디오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8시에 함평대미너스튜디오에서 개최됩니다. 본 대회는 전국 아마추어 골퍼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한 취미 스포츠 대회로 개최됩니다. 대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대회 당일에는 골프용품 전시회, 골프교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대회 문의: 010-9700-1111

주최 : 광주일보
주관 : 함평대미너스튜디오
후원 : 한국골프협회, 한국골프신문, 한국골프신문사, 한국골프신문사, 한국골프신문사

문의 : 010-9700-1111